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과정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은 것은 이미 오래 전 일 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삼상13:14). 그런 후에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21절에 의하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40년간 통치하였으므로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사울이 죽은 후에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는 한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차례 사울이 왕의 지위를 잃게 되리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기 위해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바로 내려오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은 맥락에서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도 순탄하지만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미 사무엘상 16장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대답해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28:6)."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창을 던지는 사울의 위협 가운데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광야로 도망 다니고 가드 왕 앞에서는 미치광이 행세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도망하는 중에도 그일라를 치러 온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고 난 후에도 여전히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과 사울의 남아 있는 아들 이스보셋의 저항에 맞서야 했습니다. 다윗에게 남아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뿐 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는 왕의 자리를 길게 하시고 다윗에게는 그 동안 이토록 시련의 시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공과는 다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부(富)를 축적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며 많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켜 칭송을 받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사울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부유한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이며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였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금 수저 출신이 금 수저 된 것 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40년을 다스린 왕이라는 의미는 오랜 시간 백성들이 그들 따랐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울의 입장에서 한가지 아쉬움이라는 것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 올 때 여인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욱 높인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울은 성공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의 자리에 오래 있는 것이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이 후 사울은 처음에 겸손하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화를 끊임없이 표출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실패한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대상10:14)”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회개하고 돌아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사울은 실패하였을지라도 인간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있게 될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을 다루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킨 왕에게는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지마는 동시에 회개를 촉구하시며 심판을 피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 33장11절 말씀에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

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시지 사람이 그대로 악을 행하다가 멸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주어진 이 기회의 시간이 역설적이게도 다윗에게는 역경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울을 위해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을 위해 사울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른 것입니다(사55:8).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는 동안 다윗이 고난의 시간을 지내도록 하셨지만 그것은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이 다윗에게는 준비의 기간이었습니다.

다윗은 30세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20대 시절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다윗은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 용감하게 싸우며 힘을 기르고 또한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임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다윗으로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다윗이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또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전 생애에 걸쳐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복이 아니라, 사울처럼 다윗도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다윗과 함께 해 주신 것이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 일이 순조롭게 될 때에는 기뻐하다가도 무언가 난관을 만나 고난을 겪게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분만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겸손하게 주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